

車·금속가공 업체 2곳 중 1곳 근로시간 초과

금속가공 제조업 64% 1위...2004년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
고용노동부 전국 100곳 조사...광주 80%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등 금속가공 제조업 협력 업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은 여전히 한 것으로 나타나 수시감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 전국의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인 50개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주 3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가 4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36.4% 등의 순이었다. 사업장 구

분별로는 30~100인 58.5%, 100~300인 50.0%, 5~30인 34.6% 등이다. 또 지역별로는 부산이 80%로 가장 높았고, 대전 70%, 경기 56.7%, 대구 40% 등의 순이었다.

올해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 2012년 감독 당시 위반율 96%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1%로 여전히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0개 기업 중 휴일근로를 포

함해 총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은 6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청과 대구청이 각각 10개 중 8곳으로 80%로 높았고 중부청이 30개 중 20곳(66.7%), 부산청(15개 중 9곳 60%)·대전청(10개 중 6곳 60%)이 뒤를 이었고 수도권 서울청은 총 25개 중 9곳으로 36%를 차지했다.

또 휴일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기업도 부산청(2곳)과 대구청(2곳), 광주청(1곳) 등 5곳이나 됐다.

이와 관련 감독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A사의 대표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납품해야 하는 구조로 변동하는 납품물량과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

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정기감독(300개소)과 함께 섬유제품·식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자연재 현상에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9.74 (+7.39)

↑ 금리 (국고채 3년) 1.28% (+0.01)

↑ 코스닥 667.61 (+4.03)

↓ 환율 (USD) 1119.90원 (-5.10)

금호타이어 매각작업 본격화

내달 20일 공고...박삼구 회장 우선청구권 행사 주목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내달 20일께 매각공고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예비입찰은 11월 중순, 본입찰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 일정이 1~2개월 늦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9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2.1%의 지분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판매 연결망을 갖춘 세계 12위 타이어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이번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들고 있는 상태. 우선매수청구권은 제3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금호타이어의 경우 박 회장이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가를 수용하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타이어 인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금을 모으고 응찰자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자격으로 박 회장이 1조원 안팎의 자금을 끌어모으기에는 힘이 부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되찾아오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확정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금호타이어의 부진한 실적에 매각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2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26.4% 줄어든 4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한자손 등의 영향으로 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60㎡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 감정평가액 기준 변경 추진

건설업계 “서민주택 분양가 인상” 반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안이 서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초래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0㎡ 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화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0㎡ 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기존 조성원가 연동방식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조성원가 역전현상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할 경우 실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

배적이다. 지난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택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현재와 동일하게 조성원가 연동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철회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양용지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 수익구조나 분양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학생 81%

“우리나라

대표기업은 삼성”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은 ‘삼성’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대학생 1484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표 기업집단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삼성을 선택했다고 30일 밝혔다.

2위 LG(28.4%)와 3위 CJ(24.0%), 4위 현대(18.5%), 5위 현대자동차(15.8%)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삼성을 택한 비율은 여학생(82.7%)이 남학생(77.7%)보다 높았다.

설문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5개사 중 공기업(13개사)을 제외한 52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을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꼽은 이유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선택 이유를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59.6%·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 연 매출 규모(42.0%)나 경제 성장에 이끄는 사업(25.2%), 대표 경영자(14.2%), 우수인재(13.2%) 등이 있는지도 이유였다. 대학생들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IT정보통신업이며 미래에도 한국을 대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조환익 한전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9일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에서 배전망 건설사업 계약을 마치고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장(왼쪽부터 세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제공>

한전 3900만 달러 도미니카 배전망 사업 계약

배전 건설 이어 9000만 달러 누적 매출...국내 중기 참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에서 발주한 3900만달러(한화 약 450억원) 규모의 도미니카 배전망 건설사업 계약을 29일(현지시간) 현지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미니카 전 지역에 걸쳐 전주 7102기, 전선 2200km, 변압기 149대의 배전망과 설비를 신설·교체하는 작업으로, 한전은 설계부터 자재구매,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배전망 건설사업에는 전력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며 100억원 상당

의 국내 중소기업 동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2011년 도미니카에서 5100만달러(580억원) 규모의 배전 건설사업을 수주해 완공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미니카에서 누적 9000만 달러(103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계약에 앞서 다닐로 메디나 도미니카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소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 등 에너지 신산업

과 신재생에너지, 손실감소기술 등 한전의 기술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미니카는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신흥국이지만, 전력수요에 비해 발전량이 적은 데다가 전력손실이 31.1%에 달해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겪고 있다.

한전은 도미니카가 보유한 자연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설비를 대체하고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원에촌
NAMWONYECHON BY KENSINGTON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한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명품 한옥 '남원에촌 by 켄싱턴' 그랜드 오픈!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라!’

남원 에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선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마다 혼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에촌 by 켄싱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